‘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로 결정

제주교육공론화위, 제2차 회의서 두번째 의제 결정
現 동지역 평준화·읍면 비평준화 일반고 전환 거론
제주시 동지역으로 학교 옮길 경우 신제주권 유력

정부의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따라 2025년까지 일반고로 바뀌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모형이 공론화를 통해 정해진다. 제주시 동(洞)지역 서부권으로 학교를 옮기는 안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이 제주교육공론화 2호 의제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편안한 교복’(중·고생 교복 개선) 도입을 교육감에게 정책 권고했던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17일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제주외고 전환 모형은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와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 두 가지다.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지만,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바꾸려면 학교 이전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신제주권에 새 부지를 확보해 학교를 옮기는 방안이 교육청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시 동지역 서부권의 경우 학교 선택 제한으로 학생 수용 문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 이전이 필요하다면) 노형·신제주권 이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며 “읍면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 자리에서 가칭 ‘고성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이전 등을 함께 고려해 제주외고 전환 모형을 정해야 하는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교육청 차원의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이 한차례 무산된 바 있어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015년 제주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제안했지만 학부모, 동문 등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공론화위는 오는 2월 7일 3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공론화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세부 의제와 여론조사 방법, 도민참여단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이 다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정대로 추진되면 정부가 계획한 2025년보다 이른 시기에 일반고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충실한 공론화 과정으로 도민이 합의하는 전환 모형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제주지역 올들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어제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주지역에 올해 들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0시를 기해 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당시 도 전역의 시간당 평균 농도는 89㎍/㎥로 측정됐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의보가 발령되자 “과격한 실외 운동이나 외출 등을 자제해야 한다”며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 미세먼지 흡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해제됐으며 해제 당시 농도는 27㎍/㎥으로 관측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홍보슬로건 선정

도, 우수 2건·장려작 5건 뽑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슬로건 공모결과 우수작 2건과 장려작 5건이 각각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슬로건 공모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에 비해 151건 늘어난 총 566건(도내 130건, 도외 436건)이 접수됐다.

슬로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우수작에는 ‘아픔을 치유로, 4·3을 미래로, 세상을 평화로’(대전), ‘함께해요! 4·3 정신, 느껴봐요! 평화인권’(서울)이 선정됐다.

장려작에는 ‘가치 있는 4·3 정신, 같이 잇는 세계평화’(경기), ‘제주4·3! 아픔의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제주), ‘새겨라! 4·3의 정신, 퍼져라! 평화의 울림’(인천), ‘함께 잇는 4·3 정신, 함께 여는 세계평화’(대구), ‘4·3정신의 큰 울림, 한라에서 백두까지!’(대전)가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홍보아치, 선전탑, 현수막, 홍보자료, 홍보영상 등 각종 제72주년 4·3희생자추념식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국회의원선거 앞둬 위법행위 예방·단속

제주도선관위 설명절 기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맞이해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설연휴기간에 유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설 대목 맞은 농산물공판장 20일 제주시 일도동 소재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에 설 대목을 맞아 소비시장에 선보일 과일들을 경매인들이 경매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학생 윈도우10 무료 지원 제주는 제외

서울·강원교육청 등 소속 학생 혜택과는 대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초중고 학생에게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지역 학생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도교육청과의 제휴를 통해 초중고 학생에게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오피스 365 학생 지원 안내 사이트에서 소속 교육청을 선택한 뒤 계정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학생마다 정품 윈도우가 설치된 PC 1대에 한해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강원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 소속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과 달리 제주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학부모는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생들에게 윈도우 10 무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며 “제주 학생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윈도우 10이 설치된 컴퓨터를 사면서 윈도우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라이센스를 함께 구매하는 것은 ‘중복 구매’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2018년부터 이를 구매 보급하고 있지 않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라이센스를 구매한 교육청에 한해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를 지원해 주고 있어 도내 학생에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국내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 1명 발생

질병관리본부,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제주도, 지역사회 감시·대응 강화나서

국내에서도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반 가동 등 후속대책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해 발표함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방역대책반 가동과 감염병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의료계, 민간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 강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자제,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자제와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했다. 조상윤기자